

탈진실 시대의 혐오 언어와 기독교윤리의 대응*

- 언어행위이론을 통한 윤리적 성찰과 실천 전략

조안나(스텔렌보쉬대학교, 연구원)

- I. 들어가기
- II. 탈진실 시대의 혐오 언어 구조와 수행성
- III. 혐오 언어의 언어행위이론적 분석
- IV. 기독교윤리의 언어행위: 예수의 수행성과 신학적 발화
- V. 공공신학과 언어 실천의 사회적 전략
- VI. 진리·정의·공동선의 언어윤리 구조
- VII. 기독교 공동체의 언어윤리와 대응언어
- VIII. 나아가며: 언어, 권력, 그리고 윤리적 전환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5.63.04>

* 본 논문은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의 2025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로, 2025년 11월 29일 가을학술대회에서 「탈진실 시대의 혐오 언어와 기독교윤리의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원고를 토대로 학회지 게재 형식에 맞추어 수정·보완한 것임.

• ABSTRACT •

Hate Speech in the Post-Truth Era and Christian Ethical Responses: Ethical Reflection and Practical Strategies through Speech Act Theory

Research Fellow, Anna Cho (Stellenbosch University)

This article examines hate speech in the post-truth era through the framework of Speech Act Theory and investigates how Christian ethics can respond to the performative power of language. Hate utterances, far from being mere emotional reactions, function as linguistic acts that reproduce social exclusion and moral disintegration through repetition, naming, and binary opposition. I argue that Christian ethics must reclaim the performative potential of truth and justice, developing a language practice that actively intervenes in the structures of public discourse. Drawing upon both theoretical analysis and contextual examples,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Christian ethical discourse should not remain a moral commentary but become a communicative act that reshapes relationships and restores dignity. Beyond normative critique, it outlines the structural principles and theological significance of counter-speech as a public practice of faith, articulating a renewed ethical vision for Christian language in the age of post-truth.

Key words: Post-truth, Speech Act Theory, Hate Speech, Christian Ethics, Public Theology, Counter-speech

I. 들어가기

현대 사회는 이른바 ‘탈진실(post-truth)’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개념은 2016년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과 개인적 신념이 여론 형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정의되면서 대중적 용어로 부상했다.¹⁾ 21세기의 정치 담론과 미디어 환경, 특히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체계는 진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체하며, 오히려 정보의 ‘정서적 수용 가능성’에 따라 현실을 재구성하는 구조를 만들어냈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단지 정보 왜곡이나 가짜뉴스 문제뿐만 아니라, 혐오 발언과 차별 담론이 ‘감정의 진실’이라는 탈진실의 궤도 위에서 사회적 규범처럼 정당화되는 기이한 윤리적 전환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사회 역시 이러한 시대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코로나 19 확산기 동안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감염자 낙인 및 배제 담론이 SNS를 통해 재생산되었고,²⁾ 성소수자나 여성에 대한 혐오적 언사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일상 언어로 침투했다. 이는 단지 개인적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혐오 언어가 공적 권위를 획득하는 탈진실적 구조의 일부이며, 발화된 언어가 현실에서 실제로 차별과 배제를 유발하는 ‘수행적 행위(performance act)’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³⁾ 이러한 시대적 조건 아래에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핵심 질문을 던진다. “기독교윤리는 탈진실 시대의 혐오 발화를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고, 그것에 맞서 어떠한 언어적 구조와 실천 전략을 수행할 수 있는가?” 혐오 언어

1) Oxford Dictionaries, “Word of the Year 2016,” <https://languages.oup.com/world-of-the-year/2016>(2025년 7월 2일 접속)

2) 라바니, 김경학, “코로나19 확산기 외국인 거주자의 차별과 배제 경험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 21(12/2) (2021), 673-688.

3) Richard Delgado and Jean Stefancic, *Must We Defend Nazis? Hate Speech, Pornography, and the New First Amendment* (New York: NYU Press, 1997), 11-26.

가 진실의 자리에서 감정의 권위를 빌어 사회적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때, 기독교윤리는 선언적 거부를 넘어서, 언어적 차원에서 실제로 상처받은 타자의 삶에 개입할 수 있는 윤리적 발화를 구성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감정이 진실을 대체하는 시대적 전환점에서 언어 그 자체가 수행하는 힘, 즉 ‘언어의 수행성(performativity)’에 주목하여, 혐오 언어가 작동하는 구조와 그것이 사회 현실에 미치는 윤리적 함의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독교윤리의 실천적 대응 언어(counter speech)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 과정에서 언어행위이론(Speech Act Theory)은 핵심 이론적 기반이 된다. 언어가 단지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세계를 구성하고 사회를 행위적으로 조직한다는 이론은, 혐오 발언의 위력을 설명하고 동시에 그에 대한 윤리적 대응의 가능성을 여는 중요한 열쇠다.⁴⁾ 존 오스틴(John L. Austin)은 『말과 행위(How to Do Things with Words)』에서 “언어는 말하는 동시에 무언가를 행한다”는 수행적 언어(performatives)의 개념을 정식화했다.⁵⁾ 그의 제자인 존 서얼(John Searle)은 이를 체계화하면서 언어행위를 단순발화행위(locutionary act), 의미수반발화행위(illocutionary act), 효과수반행위(perlocutionary act)로 구분하였다.⁶⁾ 이러한 이론적 구분은 혐오 발언을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나 사적 감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실재를 변화시키고 특정 대상에 실제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로서의 언어로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이 이론적 통찰을 바탕으로,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혐오발언

4) Rae Langton, “Speech Acts and Unspeakable Acts,” *Philosophy & Public Affairs* 22/4 (1993), 293-330.

5) J. L. Austin, *How to Do Things with Words*, 2nd ed., ed. J. O. Urmson and Marina Sbis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6) John Searle,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Excitable Speech)』에서 “말은 타자를 다치게 할 수 있으며, 국가 권력과 사회 규범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⁷⁾ 그녀는 특히 소수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 단지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수자의 지위를 고착화하는 폭력적 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혐오 언어를 ‘주권적 수행발화’로 규정하였다.⁸⁾ 이러한 버틀러의 통찰은 기독교윤리적 대응언어 역시 단지 ‘말로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사회적 질서를 수행적으로 제시하는 언어행위여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기존의 기독교윤리 논의는 혐오 표현에 대한 도덕적 규범화나 신앙적 비판에 머무르는 경향이 강하며, 언어 그 자체가 수행하는 사회적 작용에 대한 분석과 개입 전략은 미흡한 실정이다. 일부 연구는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와 신학적 성찰을 시도했으나, 언어의 내재적 구조나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효과에 주목하지 못했다. 또한 기독교 내 발화 역시 때로는 차별과 배제를 강화하는 담론을 담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내재적 비판은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혐오 언어의 언어행위적 구조를 분석하고, 기독교윤리가 수행할 수 있는 ‘윤리적 언어행위’의 구성 원리와 실천 전략을 탐색하고자 한다. 혐오 발화가 작동하는 방식과 그 반복성을 해체하고, 이를 전도할 수 있는 공공 신학적 언어 윤리를 제시함으로써, 언어를 통한 정의의 실현 가능성을 신학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단지 교리적 비판을 넘어선 신학의 사회적 수행성 확보라는 공공신학적 과제를 구체화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7) Judith Butler,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ledge, 1997).

8) 위의 글, 44-45.

II. 탈진실 시대의 혐오 언어 구조와 수행성

2010년대 중반 이후 서구 담론 공간에서는 ‘탈진실(post-truth)’이라는 용어가 정치적 현실을 설명하는 핵심 개념으로 부상하였다. 이 용어는 단순한 거짓말이나 왜곡된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과 정체성 동일시가 사실 검증을 대체하고, 진실이 설득의 논리로써 설 자리를 점차 잃어가는 현상을 묘사한다. 한마디로 사실 그 자체보다 “사실을 느끼는 방식”이 담론 권력을 획득하는 구조가 탈진실의 핵심이다.⁹⁾ 이로써 언어는 객관성을 가리키는 기호가 아니라, 공감과 분노를 생산하는 정치적 도구로 변질되며, 혐오와 차별의 언어는 더욱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 전환은 언어의 기능과 위상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다. 진실의 논리보다 감정의 논리가 우위에 놓이면서, 언어는 정보 전달의 기능보다는 감정의 공유와 증폭을 위한 도구로 작동하게 되며, 공공성에 대한 감수성은 점차 약화된다. 이로 인해 공적 담론의 장은 객관적 검증보다 ‘정서적 반응’과 ‘정체성 동일시’에 의해 좌우되며, 언어는 더 이상 현실을 서술하는 기호체계가 아니라 정서를 매개하는 실천 도구로 기능한다.¹⁰⁾ 이러한 조건 속에서 혐오 표현은 단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에 대한 존재론적 배제의 언어 행위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언어가 감정을 통해 사회적 경계를 형성하는 방식은 언어행위이론(Speech Act Theory)을 통해 정교하게 설명될 수 있다. 오스틴은 『말과 행위(How to Do Things with Words)』에서, 언어는 현실을 묘사하는 도구를 넘어서, 말함으로써 현실을 변형시키는 수행행위(performance)라고

9) Oxford Dictionaries, “Word of the Year 2016,” <https://languages.oup.com/word-of-the-year/2016> (2016년 7월 2일 접속)

10) Lee McIntyre, *Post-Truth* (Cambridge, MA: MIT Press, 2018), 4-10.

분석했다.¹¹⁾ 그는 발화에는 행위적 효과가 따르며, “나는 사과합니다”, “나는 당신을 해고합니다” 같은 문장은 그 자체로 행위의 발생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분석은 특히 혐오 언어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유효한데, 왜냐하면 혐오 발언은 단순한 의미 전달을 넘어서, 청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존재 자격을 훼손하며, 공동체로부터의 배제를 수행하는 효과수반발화이기 때문이다.¹²⁾ 존 서얼(John Searle)은 오스틴의 틀을 계승하면서 이를 더 정교화하여, 모든 발화에는 단순발화행위(locutionary act), 의미수반발화행위(illocutionary act), 그리고 효과수반발화행위(perlocutionary act)라는 삼중 구조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혐오 발언은 청자를 불쾌하게 하거나, 침묵하게 하며, 심지어 자기 부정을 유발하는 언어 효과를 낳기 때문에, 단순한 표현의 자유 논리로 정당화될 수 없다.¹³⁾

이러한 발화의 사회적 위력은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에 이르러 권력 비판의 언어윤리적 논의로 확장된다. 버틀러는 『혐오발언(Excitable Speech)』에서 수행성이란 단순한 발화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반복되고 제도화된 담론의 조건 속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라고 규정한다. 그녀에 따르면, 혐오 언어는 개인적 편견의 표현이 아니라 사회가 어떤 존재를 말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며, 발화는 존재론적 억압으로 작동한다.¹⁴⁾ 예컨대, “재는 평균이야”라는 발화는 그 사람을 혐오의 대상을 넘어서, 말할 수 없는 존재, 말해질 자격이 없는 존재로 만든다. 이때 언어는 단지 표현의 도구가 아니라 사회적 실재를 조직하는 통치적

11) J. L. Austin,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5-10.

12) John Searle,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25-38.

13) 위의 글, 41-47.

14) Judith Butler,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ledge, 1997), 1-15.

기술로 기능한다.¹⁵⁾ 그녀는 특히 혐오 발언을 주권적 수행발화(sovcreign performatives)라고 부르며, 말이 반복될수록 규범과 제도, 감정의 표준으로 내면화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가 지적한 바 있는 언어와 권력의 계열적 연관과도 긴밀하게 연결된다. 푸코에 따르면 권력은 억압이 아니라 생산이며, 담론을 통해 주체를 구성하고 실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¹⁶⁾ 혐오 발언은 결국 규범적 언어가 특정 집단을 배제하고, 그 배제를 정당화하며, 공적 담론에서의 말할 권리조차 박탈하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이러한 발화 구조는 오늘날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증폭된다. 특히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플랫폼은 알고리즘에 의해 혐오 콘텐츠를 더 많이 노출시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단일한 발화를 사회적 정서로 확대·반복·내면화시키는 조건이 된다. 결과적으로 혐오 언어는 개인의 감정적 일탈이 아니라, 플랫폼 구조에 의해 배양되고 증폭되는 감정 정치(emotional politics)로 기능하며, 공동체의 언어 질서를 근본적으로 왜곡시킨다.¹⁷⁾ 이는 리처드 세넷(Richard Sennett)이 말한 공공성의 쇠퇴, 즉 합리적 언어의 실종과 감정의 과잉이 주도하는 공적 공간의 위기와도 맞물린다.¹⁸⁾ 이와 같은 구조 속에서 혐오 언어는 단지 규제나 처벌로 해결될 수 없는 깊은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 오늘날 디지털 플랫폼에서 나타나는 혐오 발언은 오스틴과 서얼이 구분한 효과수반발화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유튜브의 혐오 콘텐츠, 트위터의 공격적 해시

15) 위의 글, 18-24.

16) Michel Foucault,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and the Discourse on Language* (New York: Pantheon, 1972), 215-230.

17) Zeynep Tufekci, *Twitter and Tear Gas: The Power and Fragility of Networked Protes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7), 139-153.

18) Richard Sennett, *The Fall of Public Man* (New York: W. W. Norton, 1992), 261-278.

태그, 커뮤니티 게시판의 혐오 게시글 등은 단지 모욕적인 언어를 넘어서, 실제 청중의 감정과 행동을 유도하고, 사회적 관계를 재편하는 효과를 낳는다. 특정 발화가 수천 개의 '좋아요'와 댓글로 지지받을 때, 이 발화는 청중에게 감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혐오를 일종의 사회적 합의처럼 구성한다. 이는 단지 '나쁜 말'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가 감정, 권력, 대중 정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실재를 조직하는 구조적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서 분석되어야 한다.

특히 탈진실적 환경에서는 이러한 효과수반적 혐오 발화가 더욱 쉽게 반복·확산되며, 그 파급력은 단일한 청자를 넘어 사회 전반의 인식 지형을 바꾸는 데까지 이른다. 이처럼 인터넷 기반의 혐오 언어는 발화자의 의도를 넘어서, 청자의 감정 반응과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 권력적 담론을 생산하며, 결과적으로 소수자 배제, 존재 부정, 폭력 정당화의 사회적 흐름을 촉진하는 구조로 작동한다. 이에 따라 기독교윤리는 이와 같은 혐오 발화가 초래하는 구조적 결과에 주목하여, 단순한 도덕적 반박이 아닌 언어 행위로서의 개입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탈진실 시대의 혐오 발언은 감정과 정체성, 정치, 공동체를 하나로 엮는 복합적 언어 구조이기 때문에, 기독교윤리는 단지 혐오를 비판하거나 금지하는 것을 넘어서, 다르게 말하는 방식, 요컨대 윤리적 언어의 대안적 수행성을 요청받는다. 이 지점에서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의사소통 행위이론(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을 통해, 공공신학의 언어를 사회적 합의와 상호 이해의 과정으로 재조명할 수 있다. 하버마스에 따르면 진리와 정의, 그리고 공동선은 단지 규범적 명제가 아니라, 언어와 행위를 통해 성취되는 공동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형성된다.¹⁹⁾ 기독교윤리의 언어

19) Jürgen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ume 1: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trans. Thomas McCarthy (Boston: Beacon Press, 1984), 285-288.

는 이러한 공적 담론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며, 그 언어가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합의를 끌어낼 때 비로소 신학적 의미가 있다. 공공신학은 언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해야 하며, 교회의 언어는 공공성을 잃을 때 신학적 의미를 상실한다. 따라서 교회의 발화는 신앙 공동체 내부의 교리적 언어를 넘어, 사회적 공론장(public sphere) 속에서 타자와의 소통을 통해 공동선을 실현하는 수행적 언어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은 단순히 ‘진리를 말하라’는 계몽주의적 명령이 아니라, 언어를 통해 진리를 구성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식, 곧 발화 그 자체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배제를 거부하는 윤리적 언어행위를 회복하는 데 있다.

III. 혐오 언어의 언어행위이론적 분석

오늘날 혐오 언어는 단순한 모욕적 표현이나 일회성 감정 발현으로 볼 수 없다. 그것은 구조화된 권력관계와 역사적 차별의 맥락 속에서 반복되며 사회적으로 ‘정당화’되는 언어 행위이다. 특히 이 발화들은 대상화된 타자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조직하고, 특정 범주를 비인간화하며 배제를 정당화하는 상징적 실천으로 작동한다. 언어는 이 과정에서 감정을 활성화시키는 동시에, 특정 집단에 대한 제도적 억압과 차별의 논리를 구성하는 수행적 장치로 기능한다. 언어행위이론은 이러한 혐오 발화의 층위를 분석하는 강력한 이론적 틀을 제공하며, 그 중 특히 의미수반발화행위와 효과수반발화행위는 혐오 언어가 어떻게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다.²⁰⁾

예컨대 “너는 그들처럼 생겼어”라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진술이지만, 그것이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경멸을 동반할 때, 이는 혐

20) J. L. Austin, *How to Do Things with Wor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94-107.

오 언어로 작동한다. 여기서 핵심은, 그러한 발화가 반복될수록 그 사회 안에서 일종의 규범적 사실로 내면화되고, 그 결과 대상화된 집단은 구조적 차별의 실질적 피해자가 된다. 반복적 인용(citation)을 통해 혐오 언어는 언어 자체의 힘을 넘어 사회적 질서를 구성하는 규범으로 전환된다²¹⁾ 이 점에서 혐오 발화는 발화자의 감정 이상을 수행한다. 그것은 청자에게 실질적 고통이나 불안을 유발하고, 나아가 대상 집단을 사회적 파멸로 몰아가는 효과수반발화행위로 기능한다. 다시 말해, 혐오 언어는 일회적 표현이 아니라, 특정 대상에 대한 낙인을 고착화하고 배제를 정당화하는 사회적 장치를 작동시키는 말의 행위다. 줄리아 크리스테바가 말했듯, 혐오의 대상은 종종 ‘비체(object)’로 간주되며, 이는 주체와 타자의 경계를 위협하는 존재로서 배제되어야 할 위협으로 인식된다²²⁾ 이러한 ‘경계 위의 타자’는 언어를 통해 구체적으로 명명되고, 그 명명은 곧 사회적 소외로 이어진다.

혐오 언어에 대한 신학적 대응은 단순한 규범적 외침이나 도덕적 비판을 넘어서, 사회적 언어 체계에 개입하는 윤리적 발화로의 전환을 요청한다. 이러한 발화는 단순히 타자를 향한 호의적 표현이 아니라, 타자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긍정하고 사회적 관계 안으로 다시 위치시키는 의미수반적 행위(illocutionary act)로 기능해야 한다. 나아가 이러한 언어는 현존하는 혐오의 구조를 유지하는 언어 질서에 균열을 일으키며, 듣는 이의 실존에 변화를 유발하는 효과수반발화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언어적 개입은, 기존의 차별과 배제의 반복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의미 질서와 관계 윤리를 가능하게 하는 공적 실천으로 자리매김된다.²³⁾

21) Judith Butler,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ledge, 1997), 51.

22) Julia Kristeva, 서민원 역, 『공포의 권력』 (서울: 동문선, 2001), 25.

23) 이러한 관점은 최근의 한 공공신학 연구에서도 정교하게 제시된 바 있다. 해당 연구는 혐오 발화가 단순히 개인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반복을 통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혐오 언어가 작동하는 방식은 단순히 부정적 언어가 아니라, 사회적 힘의 분배와 가치의 위계를 재구성하는 언어적 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대응언어(counter-speech)가 필요하다. 이 대응언어는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생성하는 신학적 언어이자 윤리적 수행이다. 예를 들어, “그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발화는 단순한 교리적 명제가 아니라, 혐오의 질서를 전복하고 타자를 회복시키는 기독교윤리 언어의 수행적 행위로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혐오 언어는 발화자와 청자 사이의 일회적 상호작용을 넘어선다. 그것은 언어적 교환 행위를 구조화하는 사회적 조건들, 곧 ‘무엇이 말해질 수 있으며(who can speak)’, ‘누가 말할 수 있는지를(who is allowed to speak)’ 규정하는 담론적 장(discursive field)의 구축과 깊은 연관을 갖는다. 이는 미셸 푸코가 언급한 ‘담론의 질서(order of discourse)’ 개념과도 통한다. 푸코에 따르면 담론은 단순한 정보 전달의 체계가 아니라, 진리의 생산과 분배를 통제하는 권력 구조이며, 사회는 끊임없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의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자신을 유지한다.²⁴⁾ 이러한 경계는 중립적이지 않다. 어떤 주체는 특정 사회적 위치, 젠더, 인종, 계급 등의 요소로 인해 ‘말화 가능한 존재(speakable subject)’로 승인받는 반면, 다른 주체는 구조적으로 ‘말화 불가능한 존재(unspeakable subject)’로 침묵당한다. 주디스 버틀러는 이를 “규범적 프레임에 의해 형성된 가시성과 청각 가능성의 정치”로 설명하며, 특정 주

며 언어적 권력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신학적 대응은 단순한 규탄을 넘어서, 윤리 언어의 의미수반성과 효과수반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타자의 존엄을 실현하고 새로운 공공 윤리를 형성하는 언어 실천으로 나아가야 함을 주장한다.

참고: 조안나, “Countering Hate: A Public Theological Approach to Language and Power in Society,” presented at the GNPT Conference (2025).

24) Michel Foucault, 조재룡 역, 『담론의 질서』 (서울: 나남출판, 2003), 17-26.

체가 언어공간에서 인정되지 않는 상황을 ‘존재의 비가시화’로 진단한다.²⁵⁾ 이는 단순히 누군가가 말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사회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존재’로 구성되는 심층적인 권력 효과다.

또한 이러한 말화 가능성의 위계는 언어의 수행성(performativity)과 결합될 때 더욱 강력한 현실 구성력이 된다. 말하자면, 특정 주체의 말은 사회적 힘을 얻어 현실을 구성하거나 규범을 창출하는 반면, 비주류 주체의 말은 권위 없는 소음(noise) 혹은 비이성적 감정의 표출로 취급된다. 이는 테어도어 아도르노(Theodor Adorno)가 지적한 ‘이성의 헤게모니 안에서 감정이 침묵당하는 구조’와도 연관된다.²⁶⁾ 여기서 혐오 언어는 단순히 타자를 공격하는 행위를 넘어서, 누가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인가’에 대한 사회적 위계를 언어적으로 재생산하는 기제로 기능한다. 더욱이 이러한 언어적 위계는 교육, 언론, 종교, 정치적 제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구조화되어 있으며, 혐오 언어는 이와 같은 구조 안에서 타자를 비발화적 존재로 환원시키는 장치로 작동한다. 특정 집단에 대한 반복적 명명화(labeling)와 고정화(stereotyping)는 그들의 말화를 사회적으로 무력화시킴으로써, 그들을 비난할 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존재’로 변형시킨다. 이와 같은 권력 메커니즘을 인식하는 것은, 혐오 언어에 맞서 윤리적 대응언어를 구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단순히 혐오 표현을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법적 장치를 넘어, ‘말할 수 없던 자’의 언어를 회복하고, 그들이 사회적 담론의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적 공공신학의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학적 언어 실천은 존재의 회복을 위한 말하

25) Judith Butler,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ledge, 1997), 132-137.

26) Theodor W. Adorno, *Negative Dialectics*, trans. E. B. Ashton (New York: Continuum, 1973), 253-254.

기이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존재의 인정을 요구하는 윤리적 행위가 된다.

IV. 기독교윤리의 언어행위: 예수의 수행성과 신학적 발화

현대 사회의 언어적 위기 속에서, 기독교 신학은 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언어의 실천적 수행성을 통해 새로운 윤리적 질서를 제안할 가능성을 지닌다. 특히 예수의 언어는 상징적 선언을 넘어, 실제로 존재론적 전환과 사회적 치유를 수행하는 신학적 언어행위로 작동한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형식으로 소비되는 언어가 아니라, 듣는 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행위로서의 말, 곧 효과수반적 발화로 작용한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 공동체가 사용하는 언어는 타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배제된 자들의 자리를 열어주는 수행적 윤리 행위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기독교윤리는 언어 자체에 대한 신학적 재성찰을 요구받는다. 혐오의 언어가 배제와 침묵을 수행한다면, 기독교윤리는 삶을 가능하게 하는 말, 다시 말해 존재를 새롭게 배열하고 관계를 복원하는 언어행위로서의 윤리를 구성해야 한다. 이러한 기독교윤리 언어의 출발점은 예수의 발화 행위 그 자체이다. 예수는 가르침이나 명령, 선언의 방식으로 진리를 전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발화를 통해 새로운 현실을 수행하고 실현하였다. 그의 발화는 단순히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무언가를 일으키는' 수행적 언어이다.

예수의 발화는 존재론적 결과를 낳는 언어, 곧 윤리적 실재를 창출하는 말이다. 오스틴이 "나는 당신을 사면합니다"라는 발화가 단순 기술이 아니라 사면이라는 현실을 일으키는 언어 행위라고 설명했듯이, 예수의 말은 치유, 용서, 화해, 초대라는 새로운 관계적 실재를 수행하는 신적 언어 행위다.²⁷⁾ 마가복음 2장 1-12절에서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

고 집으로 가라”고 명하신 발화는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실재의 변환을 일으키는 수행적 사건이다. 발화행위로서의 “일어나라”는 물리적 언어 표현이지만, 의미수반행위로서는 죄의 사함과 존재의 회복을 선포하고, 효과수반행위로서는 공동체 내에서 그 사람의 신분과 관계를 다시 세운다. 예수의 말은 현실을 기술하는 언어가 아니라, 새로운 현실을 구성하는 발화이다. 요한복음 8장 10-11절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선언 역시 동일한 구조를 가진다. 여기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은 청자의 도덕적 상태를 규정하는 진술이 아니라, 그 존재를 다시 관계 속으로 불러들이는 언어적 행위이다. 즉, 예수의 언어는 단순한 도덕적 훈계가 아닌 사회적 복권을 실현하는 윤리적 발화를 수행했다. 이는 진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실현하는 언어 행위이다.

이러한 언어적 실현은 케빈 밴후저(Kevin Vanhoozer)의 ‘정경-언어적 접근(canonical-linguistic approach)’에서 신학적으로 더 깊이 해석될 수 있다. 그는 『The Drama of Doctrine』에서 교리를 단순한 명제적 진리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삶과 언어로 연기해야 할 신적 드라마로 이해한다.²⁸⁾ 이 관점에서 예수의 발화는 단지 교리적 진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언어적으로 실현하는 신적 수행으로 이해된다. 교회는 이러한 드라마를 반복적으로 말하고 실천함으로써, 진리를 단순히 ‘선언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수행하는 공동체’로 존재하게 된다. 이처럼 밴후저의 논의는 오스틴의 수행발화를 신학적 실재의 차원으로 확장하며, 언어가 곧 교회의 존재론적 행위이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윤리적 실천임

27) J. L. Austin,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5-10.

28) Kevin J. Vanhoozer, *The Drama of Doctrine: A Canonical-Linguistic Approach to Christian Theolog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42-49, 305-317.

을 보여준다.

이것은 언어의 윤리적 책임성과 존재론적 위상을 동시에 드러낸다. 기독교윤리는 이러한 발화를 성경 내에 국한된 특수 사례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언어 실천 속에서 반복 가능한 신학적·윤리적 전범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예수의 발화는 진리 자체를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살고 수행하는’ 윤리적 언어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곧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 14:6)라는 선언이 단순한 존재 규정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통하여 진리를 구현하고 실현하는 언어행위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진리는 단순한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관계를 복원하고 존재를 살리는 발화를 통해 드러나는 신적 실재이다. 이러한 이해는 언어행위이론과 윤리적 수행성에 근거하여,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신학적 요청과 맞물린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연구는 탈진실 시대의 공공담론 구조 안에서 기독교 발화의 수행적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윤리적 진리를 말하는 행위는 더 이상 정답을 제시하거나 도덕 규범을 선언하는 차원을 넘어서, 그 자체로 사회적 의미와 정서를 재구성하는 실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진리는 선언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며, 말은 윤리적 실천의 행위가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독교 언어는 진리와 공동선을 기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말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구현하는 책임적 발화가 되어야 한다.

예컨대,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발화는 단순한 이상적 윤리 강령이 아니라, 그 말을 반복하고 실천할 때 비로소 공동체의 질서와 관계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 말·행위로 기능한다. 이는 버틀러가 말한 ‘규범적 수행성’과도 관련되며, 반복 가능하고 지속적인 발화를 통해 새로운 질서가 성립된다는 이론적 전제를 공유한다.²⁹⁾ 말은 공허한 도덕 교훈이 아니라,

29) Judith Butler,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ledge,

반복을 통해 실제적인 사회적 구조를 형성하는 규범적 실천의 언어이다. 이러한 수행적 발화로서의 진리 이해는, 오늘날 윤리 담론이 회피하거나 축소해 온 신학적 책임성과 존재론적 구속력을 다시 요구한다. 예수의 발화는 단지 이상을 제시하거나 도덕적 교훈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이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타자의 존재를 재구성하며, 실천의 질서를 열어가는 윤리적 언어의 표본이다. 결국, 기독교윤리는 단순히 '무엇이 진리인가'를 설명하는 담론이 아니라, 그 진리를 어떻게 말함으로써 윤리적 세계를 창출할 것인가를 묻는 수행적 신학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다시말해, 기독교윤리는 혐오와 침묵이 지배하는 탈진실의 언어 환경 속에서, 존재를 살리는 말, 공동체를 재건하는 발화, 그리고 진리를 실현하는 언어행위를 복원해야 한다. 이 발화는 설교와 교훈의 언어를 넘어, 윤리적 수행성과 존재론적 책임성을 동시에 내포하는 신학적 발화로 작동해야 하며, 교회는 이와 같은 언어를 사회 속에서 전략적으로 반복하고 증언함으로써, 윤리적 공동선과 화해의 담론을 형성하는 공공언어 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

V. 공공신학과 언어 실천의 사회적 전략

기독교윤리는 성서와 교리 전통을 토대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성찰하며 규범을 제시하는 데 주력한다면, 공공신학은 이러한 신학적 윤리가 사회적 맥락 속에서 공적 담론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언어화하는 작업이다. 다시 말해, 기독교윤리는 윤리적 가치의 근거를 제공하고, 공공신학은 그것을 사회적 언어로 번역하여 공론장에서 작동하게 만든다. 언어는 의미를 전달하는 매개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질서를 설정하는 실천적 구조이다. 이는 곧 공공신학이 정치적·사회적 발언에 참여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어를 통해 공동체를 재구성하고 윤리적 현실을 창조하는 과제임을 의미한다. 공공신학은 신학이 사회 안에서 수행되어야 할 ‘공공성’을, 제도나 교리의 차원을 넘어 담론적 실천의 층위로 옮긴다. 이는 곧 신학이 진리의 내용만이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 곧 수행 방식의 윤리를 다루어야 함을 뜻한다.

버틀러가 강조했듯, 언어는 반복될 때 힘을 얻고, 사회적 인용(citation of convention)을 통해 수행력을 획득한다.³⁰⁾ 이는 혐오 발언이 반복을 통해 사회의 관습이 되듯, 윤리 언어 역시 반복 가능한 언어의 구조를 형성하고 수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신학적 언어가 공공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언자적 고발, 타자 지향적 축복, 관계 회복의 선언 등 반복 가능한 담론의 형식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라는 말화는 단순한 신학적 수사가 아니라, 사회적 배제를 경험한 이들에게 존엄의 회복을 수행하는 언어적 선언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청자의 실존을 전제하고 변화시키는 효과수반발화행위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언어는 비단 종교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니라, 공공 담론 속에서 반복될 수 있는 윤리 언어의 핵심이다. 기독교 공동체는 이러한 말화를 의도적으로 반복함으로써, 혐오 언어에 의해 구축된 타자화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의 가능성을 말화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언어행위의 구조적 기제는 동일한 형식이라 할지라도, 그 수행 방향과 내포된 의도에 따라 전혀 다른 윤리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예컨대 ‘명명화(naming)’, ‘구별짓기(distinction)’, ‘반복(repetition)’ 등은 혐오 언어에서 타자 배제와 열등화의 도구로 작동하지만, 동일한 언어행위 구조

30) 위의 글, 51. 버틀러는 언어의 수행력이 사회적 맥락에서 반복적 인용을 통해 형성되며, 바로 이 반복 가능성(reiterability)이 언어의 힘을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보았다

가 신학적 맥락에서는 오히려 존엄의 승인, 관계의 회복, 공동선의 소환을 실현하는 수행적 행위로 변모할 수 있다. 이러한 수행 가능성은 언어가 정태적인 의미 전달의 도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현실을 구성하고 갱신하는 담론적 실천이라는 언어철학적 전제에 근거한다. 이에 따라 윤리적 언어의 구성은 구조적 차원에서 혐오 발화와 유사한 구문론적 형식을 취할 수 있으나, 그 의미론적·실천론적 지향에 있어 정반대의 존재론적 함의를 생성할 수 있다.³¹⁾

결국, 공공신학은 ‘무엇을 말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말함으로써 사회적 행위를 실현할 것인가’의 물음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신학 담론의 외부 확장이 아니라, 신학의 구조 자체가 언어 수행의 행위론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뜻한다. 그 결과 공공신학은 예배, 설교, 기도, 선언 등 교회 내 언어 행위는 물론, 성명서, 캠페인, 공적 발화 등 사회적 언어 행위 전반에 걸쳐 윤리적 언어의 실천성과 구조적 반복 가능성을 재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반복 가능한 윤리 언어의 수행이야말로, 혐오와 배제의 담론 질서를 전복하고 새로운 공공선을 구성하는 기독교의 언어윤리 전략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공신학의 언어 전략은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언어의 비판적 감식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는 일상적 담론이나 정치적 수사 속에 포함된 차별, 혐오, 비인간화의 언어를 감지하고 문제화할 수 있는 윤리적 언어 감수성을 뜻한다. 예컨대, “정상적인 국민”, “진짜 남자”, “진보 좀비”와 같은 언어는 특정 가치를 규범화하고

31) 이와 같은 관점은 2025년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개최된 GNPT 국제공공신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조안나, “Countering Hate: A Public Theological Approach to Language and Power in Society”에서 정리된 바 있다. 해당 논문은 언어행위이론의 구조를 따라 혐오 언어와 기독교적 윤리 언어의 수행성을 비교하고, 반복과 명명화 등의 기제를 통해 타자의 존재를 윤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신학적으로 제시하였다.

다른 집단을 경멸적 방식으로 분리하는 언어적 장치다. 공공신학은 이러한 언어의 사회적 기원을 추적하고, 그 구조적 왜곡을 드러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둘째, 신학적 가치에 기초한 대안 언어의 창출이다. 이는 사랑, 정의, 확대, 회복 등 기독교 전통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윤리 개념을 단지 교회 언어로만 사용하지 않고, 사회적 실천 개념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정의’는 성경 안에서 형벌과 공정함의 개념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과 약자의 권리 보장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정의 개념을 공공 담론에 적용할 때, “법 앞의 평등”을 넘어 “관계의 회복을 지향하는 언어”로서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이는 신학 개념의 사회적 번역이며, 공공신학의 핵심 전략 중 하나다.

셋째, 공론장 안에서 수행될 수 있는 언어적 실천의 구조화이다. 이는 이론적 언어 모델을 넘어서, 실제 시민 담론 속에서 실행 가능한 담화 규칙과 말하기 방식의 전략을 수립하는 일이다. 예컨대 공청회, 시민 집회, SNS 댓글, 언론 기고 등 다양한 공론장 안에서 기독교윤리를 반영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그것이 도덕적 강요나 선민주의적 발화로 오인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담론을 형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신학은 다원주의적 담론 윤리와 타자 인식론을 참조하며, 타자에 대한 판단보다 이해와 서사를 우선하는 언어 구조를 채택한다.

이러한 대응 언어의 실제 사례는 한국교회 안에서도 점차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2023년 ‘다문화·다종교 사회, 더불어 살아가기’ 간담회에서 이주민을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교회의 동역자”라 지칭하며, 교회가 이주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공공담론에서 차별과 배제를 해체하는 언어 윤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³²⁾ 이와 유사하게, 2024년 한복협(한국복음주의협의회)은 월례회에서

“이주민은 한국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이웃”이라며 언어적 차원의 환대 실천을 설교와 공적 담론으로 확장한 바 있다.³²⁾ B교회는 주일 설교에서 ‘상대의 경험을 들으려는 언어가 진정한 정의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공동체 안의 언어 감수성을 제고하려는 실천을 보였다. 또한 일부 교회는 청소년 대상 설교에서 ‘네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문제를 풀자’는 집단적 주체 화법을 통해 발화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결국 언어를 통해 사회의 정동적 질서를 재배열하려는 시도이다. 공공신학은 혐오와 차별의 언어를 해체하고, 존엄과 관계의 언어를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신학이 공공선을 위한 언어적 개입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실천적으로 보여준다. 이때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사회를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실천적 행위로 이해되며, 공공신학은 그 언어 실천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이론적·실천적 나침반이 된다.

VI. 진리·정의·공동선의 언어윤리 구조

진실, 정의, 공동선은 오랫동안 정치철학과 윤리학, 신학을 관통하는 핵심 가치였다. 그러나 탈진실 시대에 들어 이 세 개념은 사실의 문제를 넘어, 누가 무엇을 말할 수 있으며, 그 말이 사회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 가라는 언어적 구조의 문제로 전환되고 있다. 다시 말해, 진실과 정의, 공동선은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언어적으로 구성되고 수행되는 담론적

3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다문화·다종교사회, 더불어 살아가기: 이주민과 함께 하는 교회의 역할” (2023년 5월 23일 간담회 자료), NCCK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812706927552720&id=100064402610694&set=a.640503631439718>. 2025년 7월 2일 접속.

33)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이웃사랑 실천과 한국교회의 역할,” (2024년 3월 월례회 발표), 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8631>. 2025년 7월 2일 접속.

형식이며, 사회적 관계 안에서 구체적으로 작동하는 발화 양식이다. 진실은 사실의 정확한 묘사를 넘어서, 발화자의 정직성, 맥락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청자와의 신뢰를 기반으로 성립된다. 폴 리코르(Paul Ricoeur)는 “진실은 말해지는 방식에 달려 있으며, 말의 행위 속에서만 드러난다”고 강조한다.³⁴⁾ 따라서 진실은 참/거짓의 이분법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 책임성과 언어적 무게에 따라 실현되는 것이다. ‘진실한 말하기’는 곧 진리를 수행하는 윤리 행위이며, 이는 수행언어로 발화한다. 예컨대, 구조적 폭력이나 차별을 ‘말함으로써’ 드러내고, 듣는 자로 하여금 성찰과 행동을 유도한다면, 그 발화는 진실을 수행한 언어가 된다.

정의 또한 유사한 언어적 성격을 갖는다.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론이 ‘공정한 절차를 강조했다면,³⁵⁾ 오늘날 탈진실 시대의 담론은 정의를 누락된 목소리의 회복과 의미 질서의 재조정으로 본다. 이때 정의의 언어는 분노나 고발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게’ 하는 명명 행위이다. 예를 들어, 가정폭력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혹은 이주노동자가 ‘비합법적 존재’에서 ‘노동자’로 호명될 때, 언어는 정의를 구성하는 윤리 행위가 된다. 이러한 발화는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다시 배열하는 선언적 언어다.

공동선의 언어는 더욱 다층적이다. 공동선은 모두를 위한 최대이익이라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공통의 의미, 상호 책임, 관계적 연대를 가능케 하는 언어적 공간에서 실현된다. 이는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말한 의사소통 행위(communicative action)와 관련된다.³⁶⁾ 한마디로, 공

34) Paul Ricoeur, *Oneself as Another*, trans. Kathleen Blame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140

35)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85.

36) Jürgen Habermas,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 1 (Beacon Press,

동선을 말한다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자와 함께 살아갈 언어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우리가 함께 잘 살기 위해 어떤 언어를 선택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결국 공동선을 윤리적 언어의 과제로 삼는 것이다. 분노와 혐오의 담론이 반복될수록, 공동선은 사라지고 개인의 권리만이 목소리를 얻는다. 따라서 공동선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가능케 하는 말하기 방식, 질문의 방식, 경청의 방식 속에서 다시 세워져야 한다. 진실·정의·공동선은 모두 언어 속에서 형성되고, 언어를 통해 실현되는 가치들이다. 윤리 언어는 감정을 절제하고 욕설을 삼가는 차원만이 아니라, 이 가치들을 매일의 발화와 소통 속에서 재현하고 재구성하는 언어적 실천의 총합이다. 특히 신학적 언어는 진실을 말하는 용기, 정의를 구현하는 호명, 공동선을 촉진하는 대화 방식 속에서 그 공공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

VII. 기독교 공동체의 언어윤리와 대응언어

혐오 언어가 단순한 개인감정의 표출을 넘어 사회 구조를 재생산하는 권력적 수행행위라면, 기독교 공동체의 언어 역시 이상적 선의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대응언어로 기능해야 한다. 이러한 언어는 도덕적 명제를 반복하는 차원을 넘어, 현실을 변형시키는 언어적 실천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적 언어윤리는 일반적 언어 사용과 구별되는 수행적 특성을 갖는다. 언어는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 결과 대응언어는 진실성과 투명성을 갖고, 발화자가 신뢰 가능한 관계 안에서 말하며, 타인을 명명할 때 경멸이나 혐오의 정서를 배제하고 존엄과 맥락을 고려한 언어 선택을 동반해야 한다. 또한, 관계를 형성하는 발화 구조를 지녀 듣는 이를 설득하거나

가르치기보다 공감하고 초대하는 언어 사용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러한 윤리 언어는 발화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변화시키는 효과수반발화로 작동할 때 실현된다. 다시 말해,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결과를 유도하는가에 주목해야 한다. 구체적인 대응언어는 실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이주민이나 장애인, 성소수자 등에 대한 비하 발언을 들었을 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혹은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으로서는 매우 상처받을 수 있어요”라는 반응은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관계를 재설정하는 효과수반적 대응언어가 된다. 청소년을 지도하는 장면에서도 “너는 왜 맨날 그래”라는 비난 대신 “요즘 무슨 일이 있었니? 네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이야기해볼까?”라는 표현은 비난이 아닌 초대의 형식으로서 발화 구조 자체를 전환한다. 이는 행위자-수용자 간의 지배-피지배 관계를 해체하고 수평적 대화의 구조를 만든다. 설교나 공적 담론에서도 특정 집단을 문제시하거나 교정 대상으로 지칭하기보다는 “우리가 이 사회에서 서로를 어떻게 환대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방식이 윤리적 언어의 지향을 반영한다. 결국, 대상화의 언어를 관계화의 언어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기독교 공동체 내부에서도 이원론적 언어 관행은 자주 발견된다. 예컨대 “죄인 vs 의인”, “세상 사람 vs 믿는 사람”, “정상적인 삶 vs 타락한 삶” 등의 표현은 공동체 안팎에서 경계짓기를 강화하고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 그 결과 대응언어는 이분법을 해체하는 발화를 통해 “우리과 그들”이라는 언어 대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화법을 지향해야 하며, 배제적 명명에서 포괄적 호칭으로 전환하고, 권위적 발화에서 서사적 경청으로 나아가야 한다. 예컨대 “불량 청소년”이라는 지시 대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또는 “삶의 방향을 찾고 있

는 청소년”이라는 표현은 대상의 존엄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그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이고 윤리적인 언어가 될 수 있다. 또한, 단정하는 말보다 이야기 듣는 방식으로 발화 주체성을 분산시키는 언어 사용이 권장된다.

윤리 언어는 단발적인 실천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공동체 내 언어 습관의 변화, 예배와 설교의 언어 구조, 교육 커리큘럼과 소그룹 대화의 양식 등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독교 공동체는 언어 감수성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다양성·차별·포용 관련 언어 안내서를 개발하며, 설교 및 기도문 내 차별적 표현을 정비하는 등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대응언어의 실천은 혐오를 피하거나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구성하고 정의를 회복하는 윤리적 행위가 된다. 언어는 일상의 사소한 대화에서도 윤리적 전환의 가능성을 품고 있으며, 공동체는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VIII. 나아가며: 언어, 권력, 그리고 윤리적 전환

본 논문은 탈진실 시대의 혐오 언어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사회 구조와 권력 질서를 유지·강화하는 언어적 수행행위라는 점을 밝히고, 이에 맞서는 기독교 공동체의 윤리적 언어 실천의 가능성을 모색해왔다. 혐오 발화는 반복과 명명, 구별짓기 등을 통해 특정 주체를 배제하거나 열등화시키는 구조를 구성하며, 사회적 현실을 언어적으로 고정화한다. 이는 언어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관계를 형성하고 세계를 규정하며 규범을 제시하는 ‘행위’임을 시사한다.

이에 대응하는 언어 실천은 단순한 규탄이나 교정이 아닌, 타자의 존엄을 회복하고 새로운 공동체적 관계를 형성하는 수행적 윤리 언어로 나타

나야 한다. 이 언어는 ‘말의 내용’뿐만 아니라, ‘말이 사회 안에서 만들어내는 관계와 효과’에 주목한다. 요컨대, 윤리적 언어는 단발적 표현이 아니라 반복적 실천이며, 제도화된 언어문화로 뿌리내려야 한다. 나아가, 기독교 공동체는 스스로 사용하는 언어의 습관을 돌아보고, 공적 공간에서 연대를 회복하는 언어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할 책임이 있다. 이 논의는 언어가 곧 신학이라는 명제를 다시 환기한다. 진실과 정의, 공동선의 언어는 구체적 삶의 자리에서 발화되어야 하며, 이는 공공신학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언어는 삶의 윤리를 담는 그릇이며, 발화의 방식은 사회의 형태를 결정짓는 힘이 있다. 그 결과 혐오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제 어떤 언어로 말할 것인가를 묻고, 그 언어로 어떤 세계를 함께 구성해갈 것인가를 공동체적으로 응답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탈진실 시대의 언어윤리를 신학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언어의 수행성을 진리 실현의 신학적 원리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 Adorno, Theodor W. *Negative Dialectics*, trans. E. B. Ashton. New York: Continuum, 1973.
- Austin, J. L. *How to Do Things with Words*, 2nd ed., ed. J. O. Urmson and Marina Sbis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 Butler, Judith. *Excitable Speech: A Politics of the Performative*. New York: Routledge, 1997.
- Delgado, Richard and Jean Stefancic. *Must We Defend Nazis? Hate Speech, Pornography, and the New First Amendment*. New York: NYU Press, 1997.
- Foucault, Michel. *The Archaeology of Knowledge and the Discourse on Language*. New York: Pantheon, 1972.
- Foucault, Michel. *L'ordre du discours*. 조재룡 역. 『담론의 질서』. 서울: 나남출판, 2003.
- Habermas, Jürgen.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Volume 1: Reason and the Rationalization of Society. Translated by Thomas McCarthy. Boston: Beacon Press, 1984.
- Kristeva, Julia. *Pouvoirs de l'horreur*. 서민원 역. 『공포의 권력』. 서울: 동문선, 2001.
- Langton, Rae. "Speech Acts and Unspeakable Acts." *Philosophy and Public Affairs* 22/4 (1993), 293-330.
- McIntyre, Lee *Post-Truth*. Cambridge, MA: MIT Press, 2018.
-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Ricoeur, Paul. *Oneself as Another*, trans. Kathleen Blame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2.
- Searle, John. *Speech Acts: An Essay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9.
- Sennett, Richard. *The Fall of Public Man*. New York: W. W. Norton, 1992.
- Tufekci, Zeynep. *Twitter and Tear Gas: The Power and Fragility of Networked*

Protes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7.

Vanhoozer, Kevin J. *The Drama of Doctrine: A Canonical-Linguistic Approach to Christian Theology*.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5.

라바니·김경학. “코로나19 확산기 외국인 거주자의 차별과 배제 경험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12/2 (2021), 673-688.

조안나. “Countering Hate: A Public Theological Approach to Language and Power in Society.” 발표 논문, GNPT Conference,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25.

Oxford Dictionaries, “Word of the Year 2016,” <https://languages.oup.com/word-of-the-year/2016> 2025년 7월 2일 접속.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2023). 「다문화·다종교사회, 더불어 살아가기: 이주민과 함께하는 교회의 역할」. 2023년 5월 23일 간담회 자료. NCCK 공식 페이스북 게시물.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812706927552720&id=100064402610694&set=a.640503631439718> 2025년 7월 2일 접속.

한국복음주의협의회. (2024). 「이웃사랑 실천과 한국교회의 역할」. 2024년 3월 월례회 발표. 크리스천투데이.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58631> (2025년 7월 2일 접속).

논문투고일: 2025년 11월 12일

심사개시일: 2025년 11월 17일

게재확정일: 2025년 12월 07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탈진실(post-truth) 시대의 혐오 언어(hate speech)를 언어행위이론(Speech Act Theory)의 틀 안에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독교윤리의 언어적 실천 가능성을 탐구한다. 혐오 발화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반복과 명명, 이분화 등의 수행적 언어 구조를 통해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재생산하는 권력적 언어 행위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언어가 수행하는 윤리적 힘에 주목하며, 기독교윤리가 진실과 정의, 그리고 공동선의 언어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공적 책임을 논의한다. 특히 본 논문은 이론적 분석과 구체적 사례를 결합하여, 기독교윤리 담론이 단순한 도덕 교훈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관계와 담론 구조를 변혁하는 언어적 실천으로 작동해야 함을 주장한다. 나아가 '대응언어(counter-speech)'를 신학적·윤리적 행위로서 제시함으로써, 혐오와 배제의 담론을 전복하고, 존재의 회복과 공동체의 재구성을 이끄는 기독교 언어윤리의 방향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언어의 수행성을 통해 공공신학적 실천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말하는 행위 자체가 곧 신앙의 윤리적 증언이 되는 새로운 언어 신학의 지평을 연다.

주제어: 탈진실, 언어행위이론, 혐오 발화, 기독교윤리, 공공신학, 대응언어
